

“5개 郡 묶인 공룡 선거구, 국회의원 제역할 할 수 있겠나”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 전남지역 의견 수렴 토론회 무슨 얘기 나왔나

“5개 농·산·어촌 행정구역이 1개 선거구로 묶이는 이른바 ‘공룡 선거구’ 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도록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가 지난 21일 오후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정치력 강화와 민심 반영을 위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선거법 개헌안이 확정되면 광주·전남에서는 국회의원 의석 4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병록 목포대 교수는 “행정구역과 인구 중심의 선거구 개편은 지리적 특성과 생활권 등의 고려가 등한시돼 투표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20대 선거구의 신안·무안·영암지역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에는 담양·함평·영광·장성군과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등 2개 선거구가 4개 행정구역으로 1개 선거구로 획정돼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행정구역이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할 경우 5개 농산어촌 행정구역이 1개 선거구로 묶이는 속칭 ‘공룡 선거구’ 발생도 나올 수 있다”며 “역대 선거구 변천·생활 문화권과 무안 도청 소재 지역·나주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 속도를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수 목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인구밀도가 낮은 전남의 경우 인구대비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많은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분구나 갑축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인구밀도 낮아 선거 때마다 통폐합 진통 성장 속도·생활 문화권 등 고려해야 선거구 축소 최소화 할 정치구조 필요

은 “의석수 감소는 지역의 정치적 위상 하락과 입지 축소로 이어진다”며 “전남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도록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수 조정 선거구 획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예외조항’이나 ‘특별법’ 제정, 농어촌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옥기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은 “지리적으로 너무 광범위해 민의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4개군. 복합선거구를 3개 군으로 줄여야 한다”며 “최저 인구 하한선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지역구를 위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일권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조직국장은 “기형적 선거구 발생을 막기 위해 지속적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농어촌 선거구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인구 숫자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말고 거주면적도 산입해 획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임수 전남도당 농업인단체 연합회 대표도 “지방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역 간 인구 편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존립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7개 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를 방문해 지역민의 의견을 듣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중앙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하지 않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사진) 의원은 23일 “다른 대안이 없고, 필요하다면 마다할 수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마련한 정치아카데미 행사 특강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장관 후보) 검증동의서를 낸 적도 없고 최종 후보가 된 적도 없지만, 실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위중함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생각은 국회나 당에서 일하고 싶다. 많이 부족하지만 남북협력, 지역 균형발전,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 등에 대한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라면서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 장관의 사퇴 후임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많은 준비를 할 수 없



었던 차에 당에서 많은 분의 권유가 있었고 청와대 참모들의 직간접적인 권유가 있어서 고민했던 건 사실”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전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을 바꿔야 할 게 있고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바꿔야 할 게 있다”며 “법 개정 필요 없는 심야 조사 폐지나 특수부 축소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좀 더 본질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혹독한 후보 검증 과정과 업무수행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땀땀하고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후보가 되면 검증 절차도 남아 있지만, 미리 생각해서 우려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매일, 한 걸음씩

함께하는 '공유' 행복한 '광산'

2019 광산

공유데이

2019. 10. 26. (토) 13:00~17:00
수완호수공원

<p>공유 체험</p> <p>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업사이클링 팝업북 리본공예, 홀베이킹 수세미뜨기 캘리&수채화 건강한 치아만들기 스칸디아모스 액자 전래놀이 핸드드림커피 보드게임, 응급처치 드론, 마크라메 희망등 꾸미기</p>	<p>공유 문화</p> <p>난타 마술(풍선아트) 행복드림 뮤지컬 오카리나 소리술통기타봉사단 하모니카봉사단 색소폰 앙상블</p>	<p>공유 홍보·참여</p> <p>공유도시 광산 추진성과 게시 공유기업·단체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공유부엌 공동육아 홍보 공유장터 일상 속 작은 실천 '환경을 부탁해'</p>
--	--	--

광산공유데이 공유장터 가족판매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신청: 광산구자원봉사센터 ☎ 062-952-1365 (~'19. 10. 24.까지)
공유물품: 유아용품(장난감, 아이옷), 생활/주방용품(그릇, 냄비 등) 뷰티/미용, 도서/음반, 의류, 인테리어소품 등

광산구 (사)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조커’ 같은 괴물은 언제고 우리 곁에 등장할 수 있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86) 조커



신디 셔먼 작 '광대들'

어 낮설지 않다.

미국의 사진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디 셔먼(1954년-)의 ‘광대들’ 시리즈(2003-4년 작)는 변함없이 웃는 표정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광대의 모습이 뭔가 불안하고 섬뜩한 느낌을 전해주는 작품이다. 작품 속 광대들은 신디 셔먼이 직접 가면을 쓰고 작업한 사진 작품으로 작가가 연출하여 만든 타인의 자아를 연기하고 그녀가 연기하는 타인은 진한 분장으로 스스로를 감추고 있어 본래의 얼굴이 무엇인지 애매하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광대들의 특성 때문에 공포영화 내지는 비극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는 가 보다.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을 찍어온 신디 셔먼은 스스로 작품의 주제이자 객체를 담당해왔는데, 그러한 일련의 사진작업을 통해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작품에 투영하면서 여성의 주체회복을 강조하고자 했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고양시의 광대 아서는 코미디언을 꿈꾸지만 모두가 미쳐가는 코미디 같은 세상에서 이틀처럼 남을 웃기지 못하고 스스로 웃음이 자동으로 터져 나와 정신적 불안정을 겪는 인물. 우스꽝스러운 광대분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장면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